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3장 1-10절

날짜: 3월 8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 할 때 낳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축복이라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의(義)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방황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압복강가에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시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도, 서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절뚝발이"로 만드십니다. 내 육신의 소망을 꺾고, 내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운 환경이 아니면 나의 추한 자아와 욕심이 결코 들춰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셔서 오직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항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자식과 아내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며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형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껴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통곡합니다.

야곱은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숙곳'에 머물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자기 염려 속에 사는 육신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숙곳이 아니라 '벰엘'입니다. 벰엘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내가 누구인

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데서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 짓는 자에게 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 되듯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경험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를 더 빨리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영어 영상 플레이리스트 소식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성도님들의 영어 말씀 묵상과 영적 성장을 위해 창세기 핵심설교를 영어로 번역한 오디오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 되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From the Arms of Forgiveness Back to Our Own Devices



Passage: Genesis 33:1-10 (ESV)

Date: March 8, 2026

Pastor: Dong Suk Chung

The life of Abraham, whom we call the father of faith, is not merely a story from the past but is God's Word spoken to us, who live in an age of faith. God called Abraham and made promises to him through His Word, and what this story reveals is that it is not man who fulfills the Word, but God Himself who spoke it. Therefore, faith is not about what I do for God, but it is the process of God personally fulfilling His Word in our lives.

When people hear God's Word, their instinct is to think, "I must keep this". But fallen humanity has absolutely no ability to keep God's word on its own. When we try to fulfill the Word through our own strength, we create an "Ishmael". Abraham likely considered Ishmael as a blessing, but God commanded him to "cast him out". The righteousness created by man becomes a curse before God and a form of pride that blocks the path to Jesus Christ.

God waited until Abraham was 100 years old and had no strength left. At the very end of his despair, when Abraham could only confess, "I can do nothing", God gave him Isaac through the power of His Word. Isaac symbolizes Jesus Christ. The birth of Jesus, the Son of God, within us happens when we realize that we are sinners and weaklings who can do nothing; it is then that He comes into us as Life.

Jacob's life demonstrates what "God's election" truly means. We may feel we are here by our own will, but God chose and called us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Jacob sleeping with a stone for a

pillow, God appeared and declare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Genesis 28:15]. In short, God was saying: I will make you into the image of my Son, Jesus. This is the purpose for which God elected us.

Even after salvation, we often wander like Jacob, failing to trust God and relying on the flesh. But God does not leave us there. At the ford of the Jabbok, God wrestled with Jacob through the night, and then struck his hip socket. A broken hip meant Jacob could no longer run away or even stand on his own.

God makes us spiritually lame. He breaks our worldly hopes and drives us into circumstances we don't like. We often pray for God to change our situation, but God does not quickly fix them. Without those painful environments, our ugly egos and greedy cravings would never be exposed. God wants us to discover our true selves, so He breaks our stubborn selves. Then, He leads us to a place of surrender where we have no choice but to cling to the Lord alone.

When Jacob heard that his brother Esau was coming with 400 men, he was filled with fear and distress. He arranged his wives and children in order, resorting to creating human shields until the very end. But Esau—whom Jacob expected to come and kill him—ran to him, embraced him and wept.

Yet, even after experiencing this grace, Jacob lingered at Succoth, building himself a house and making shelters for his livestock. This represents a faith still lived for oneself, still consumed by personal worry. But God's intended destination was never Succoth; it was Bethel. Bethel is the place where we no longer build houses for ourselves, but build the

house of God and live in union with the Lord.

All the misery in our lives comes from not knowing who we are and not knowing who God is. Because we do not realize how fallen we are after eating from the tree of knowledge, we live as if we are God. Furthermore, we often view God only as a judge who punishes sin, failing to understand why He became man. We cannot imagine a God who became "me" to solve all my problems and lives within me to become my Master.

Eternal life is knowing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He sent. This "knowing" is not mere intellectual knowledge—it is the experience of becoming one with the Lord, just as a husband and wife become one flesh. "I in Christ, and Christ in me": this alone must be the singular hope and purpose of our lives. We must be certain that the suffering we are enduring right now is God's work, designed to lead us quickly to Jesus. The Lord is alive today and continues to lead us.

New English Sermons!

We would like to announce a new audio series on YouTube featuring English translations of key sermons from Genesis.

We hope that this series serves as a valuable resource for personal meditation, spiritual fellowship and outreach for English-speaking children, EM (English Ministry) members, and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Playlist found here: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